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고향 그리울 땐 언제든 찾아 오세요"

필리핀 출신 노동자인 라이언씨가 지난 달 30일 자신의 가게에서 부인 세라씨와 딸 카일라 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부〉 한국은 또 하나의 고향

❻ 하남산단에 필리핀 상점 연 라이언씨 부부

"필리핀 친구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가게를 열게 돼 기쁩니다. 타향 생활에 지친 필리핀 노동자들의 '사랑방'으로 가꿔나가고 싶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필리핀 상점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말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필리핀인들이 연신 '얘기꽃'을 피운 것이다.

이들은 하남산단 등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모처럼 필리핀 전통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60㎡ 남짓한 이 가게에는 필리핀 과자와 생선, 통조림, 맥주 등이 빼곡히 쌓여있었다.

또 가게 한켠에 마련된 주방에서는 이 곳에서 구입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다. 오랜 이국생활에 지친 필리핀 노동자들의 입장에선 싼값에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랑방'인 셈이다.

최근 이 가게를 연 주인공은 라이언(29)씨. 그는 지난 2003년 한국 입국 이후 갖은 고생 끝에 '가족'과 '개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지난해 부인 세라(30)씨와의 사이에 건강한 딸이 태어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건물주의 도움으로 가게까지 열게 된 것이다.

그는 "한국은 아내와 딸을 만나게 해준 '제2의 고향'"이라며 "모쪼록 필리핀 상점이 이국생활에서 고생하는 고향 친구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언씨의 한국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 입국 이후 6년간 심각한 생활고와 잦은 부상에 시달려 온 것이다.

라이언씨의 필리핀 상점 내부. 한 필리핀 노동자가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다.

휴게실 갖춘 가게서 생필품 등 싸게 팔아

외국인 노동자들 모여 정 나누는 '사랑방'

고생하는 필리핀 친구들에 힘 됐으면…

그는 6년 전 하남산단 내 금속공장에 첫 취업한 이후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 공장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도 고향 집에 돈을 부치고 나면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는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용접일을 하고도 5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았다"며 "산업연수생 신분인 탓에 직장도 옮기지 못한채 3년을 근무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크고 작은 부상도 라이언씨의 한국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 용접 때 튀는 불꽃으로 인해 몸 곳곳이 화상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작업중 대형 물통이 떨어지는 바람에 두 번이나 발가락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는 한국생활이 힘들어질수록 더욱 이를 악물었다. 4남1녀중 장남인 탓에 동생들의 학비와 가족들의 생활비를 보태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발가락 수술을 받은 다음날에도 공장을 찾을 만큼 억척스럽게 일에 매달렸다.

이같은 적극적인 성격은 한국에서 필리핀 부인을 만난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06년 부인 세라씨와의 첫 만남 이후 결혼까지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결혼 이후 그의 한국생활은 한결 수월해졌다. 먼 이국땅에서 의지할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세라씨는 결혼 당시 인근 초등학교에서 6년째 영어강사로 일해온터라 한국의 '물정'을 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부인의 권유로 금형공장에서 목재소로 직장을 옮긴 이후 생활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다. 기존 직장보다 급여가 두 배 이상 늘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고향집에 송금을 할 수 있었다.

필리핀 상점 개업 역시 부인의 아이디어였다. 세라씨는 두살바기 딸 카일라가 태어난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에 시달렸다. 또 항상 재해위험에 놓여있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일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세라씨는 "가게를 할 돈이 없어 막막했었는 데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가 1년간 무상으로 빌려줬다"며 "주위분들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딸을 잘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세라씨는 또 "가게를 낸 이후 필리핀 친구들이 모두 모여 한국생활을 얘기하고 생일파티도 하는 게 가장 보람 있다"며 "이 가게를 이국생활의 외로움과 고단한 삶을 달래주는 '쉼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추석 맞이 행사 풍성

지난 해 송편 빚기 행사에 참여한 이주여성들.

외국인 근로자 페스티벌

7일 평동공단 월전공원서 열려

추석을 맞아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

광주 광산구청은 오는 7일 오전 12시 광주 평동공단 월전공원에서 '추석 외국인 근로자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이주여성 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축하공연과 귀화증서 수여식 등이 열린다.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권 150명을 비롯, ▲인도네시아(120명) ▲필리핀(100명) ▲중국(100명) ▲스리랑카(70명) 등 20여개국 노동자들이 참가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공연과 노래자랑 등을 통해 이국생활에서의 외로움을 달랠 예정이다.

또 음식축제에서는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의 전통음식이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광주 쌍암공원에서는 외국인들과 광주시민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건강 걷기대회'가 열린다.

'행복한 걷기대회'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 이주여성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별 전통문화행사와 굴렁쇠·팽이치기, 어린이 태권도 시범 등의 행사가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가 외국인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과 상담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